


공동체 소식



연중 제7주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 이번 주간의 축일

- 2/22(수)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
- 2/23(목) 성 폴리카르포 주교 순교자 기념일

■ 주일학교

- 일시 : 주일 교중미사 전 (오전 10:00),
- 장소 : 나자렛교육관,
- 안내 : 학부모님의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 구역장, 반장 모임 안내

- 일시 : 2/26(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 나자렛 관

■ 재의 수요일

- 미사: 3/1(수) 저녁 7:30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 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늘 기억하세요,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46	211	163	49

■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차민서 임마누엘 김정원 안젤라	이원준 요한
차 주	문예나 요안나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 요셉	박희영 카타리나 최선윤 마리아
차 주	정수한 베드로	강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 주	김수희, 김수연, 최선윤

■ 헌금 봉사자

금 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차 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우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우금
2/12일	70명	180달러	2,175달러
조지연, 김정원, 김대연, 안병환, 김태중, 이우영, 차호섭 (총 7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7주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낮추시어 사랑의 힘을 밝히십니다. 우리도 자신을 낮추어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 폭력과 증오의 사슬을 끊고 사랑과 선으로 악을이겨 내어,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증언합시다.

그림 묵상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러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마태 5,41-42)

우리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보입니다. 그들을 위해 나를 내어줄 때 하느님께서 이웃을 위해, 또 나를 위해서 즐거움과 행복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로팔수도

제 1 독 서 :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19,1-2.17-18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3,16-23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38-48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신앙 공동체는 하느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머물고 계심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느님의 거처였고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여러 번에 걸쳐 파괴되고 더럽혀지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되고 더럽혀진다는 것은 하느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백성들, 곧 공동체 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더럽혀지거나 파괴되지 말아야 할 곳, 우리가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곳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 곧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동체가 바로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파합니다.

바오로의 가르침처럼 초대 교회는 신앙 공동체를 하느님의 성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독서에서 바오로는 분열과 다툼 자체가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인 공동체를 더럽히고 깨트리는 행위라고 말하면서, 공동체를 일치시키는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위해 교만하지 말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더 나아가 하느님의 것임을 항상 기억하라고 권고합니다. 만약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면, 교회는 분열될 것이고, 하느님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오늘 1독서는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레위 19,2)고 말하면

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으며, 양갈음하거나 양심을 품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진정 이웃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1독서의 가르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아버지 하느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과 공동체의 거룩함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1독서는 분명 잘못된 이가 있으면 그 잘못을 꾸짖으라고 권고하는데(레위 19,17), 원수에게는 우리가 꾸짖어 주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아무런 원수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르다가 만나게 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을 원수라고 느끼는 것마저 잘못이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원수는 원수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원수의 죄를 꾸짖고 그릇된 것을 올바르게 잡아야 하지만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원수를 이웃처럼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껴안는 신앙인으로 거듭납시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훌륭한 길임을 기억합시다.



‘하느님’ 과 ‘하나님’ 은 다른 분인가?

‘God’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느님, 하나님, 창조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가톨릭에서 쓰는 말이고, ‘하나님’은 개신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신앙인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하느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요?

하느님은 우리말로는 하늘, 한자로는 천(天)의 존칭어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높은 하늘은 그것을 창조한 절대자를 상징하며, 인류 종교 현상 속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종교 표현입니다.

원래 가톨릭에서는 ‘천주님’이라는 말을 써오다가 1971년, 한국의 가톨릭과 개신교 학자들이 성서 공동번역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야훼를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제외한 개신교에서 이를 거부하며 천주교가 우상숭배를 한다고 오해하여 그들은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하나뿐인 신으로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그것은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으신, 절대자이신 그분을 다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하

느님 아버지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뿐임을 믿고 그 이름에 우리 인생의 모든 희망을 둘 때 비로소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 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탈출 3,6)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로마 10,13)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장



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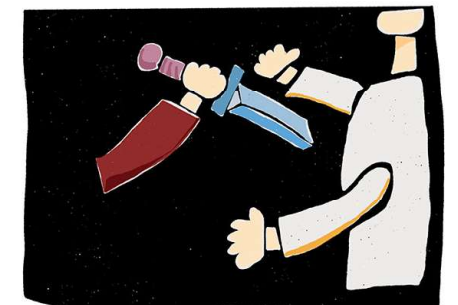
원수는 나의 불행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원수는 내가 힘들 때 가장 기쁜 사람

원수는 기회가 된다면 나의 생명도 앗아갈 사람

그래도,

원수는 죽는 순간까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마태 5,44)